

원 개

鍼感 및 鍼響에 대한 文獻的 考察

김성철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Abstract

A Study of Literature Review on Needling Sensation and the Flow of the Needling Sensation

Kim, Sung-chul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al,
Won Kwang University

Objective : To study needling sensation and the flow of the needling sensation the ancient and the present literatures were reviewed.

Results :

1. The needling sensation was getting the Qi and a normal reaction of acupuncture.
2. The flow of the needling sensation was promoted the Qi and normalized the flow of the Qi
3. The needling sensation of a patient expressed soreness, distension, heaviness, numbness, tingling, flushing, fervor, chill, itching, and so forth.
4. The needling sensation of a patient expressed simple or complex syndrome.
5. The needling sensation of a doctor expressed objectively more than the needling sensation of a patient in the hand feeling of a doctor.
6. The doctor was compared good needling sensation and bad needling sensation.
7. The needling sensation and the flow of the needling sensation were processed continuously.
8. The needling sensation and the flow of the needling sensation were connected with a nervous system and expressed variously in the anatomical structure and hand acupuncture technique.

Key Words : needling sensation, the flow of the needling sensation, getting the Qi, the flow of the Qi

· 접수 : 5월 9일 · 수정 : 5월 11일 · 채택 : 5월 19일

· 교신저자 : 김성철, 광주 동구 계림동 동진한방병원장 동신대 한의대 겸임교수(Tel : 062-234-1221)

E-mail : kscnndl@hanmail.net

I. 서론

人體를 構成하는 氣는 生命을 維持하는 精微로운 物質인 同時에 生理機能의 表現으로 眞氣라고 하며 原氣·宗氣·營氣·衛氣 등이 이 範圍에 屬한다^{12,14}. 眞氣가 經脈중을 運行할 時를 經氣라고 하며 經穴중에 輸布되는 氣를 穴氣라고 하는데 이러한 穴氣는 一定한 經絡 循行徑路를 따라 循環한다¹⁴.

鍼灸治療는 全身에 氣血을 運行시키고 人體의 異常을 反映하는 經脈의 屬性을 利用하여 經絡의 衛·氣·營·血과 陰陽의 不均衡 狀態를 調節하여 生理的 機能으로 轉換시키는 疾病 治療法이다^{10,12}. 疾患에 따라 正確한 穴位를 選擇한 後에 刺鍼하는 것은 治療效果와 直結되며 刺鍼을 하더라도 經氣를 調節해야만 滿足할 만한 治療效果를 얻을 수 있다.

得氣는 <素問·離合眞邪論篇>에서 “吸則內鍼 無令氣忤 定而久留 無令邪布 吸則轉鍼 得氣爲故”라고 記述하였다¹⁶. 이는 일정한 穴位에 刺鍼한 狀態에서 일정한 手技를 가했을 時 鍼刺部位에서 나타나는 經氣의 感應으로 다른 文獻에는 氣至⁴·鍼感⁴·鍼氣¹³·氣來⁹·氣滿⁹·氣下⁹·神動¹⁵·氣行¹⁵이라는 表現으로 使用되었다.

<素問·鍼解篇>에서는 “刺實須其虛者 留鍼陰氣隆至 乃去鍼也. 刺虛須其實者 陽氣隆至 鍼下熱乃去鍼也”라 하여¹⁶, 得氣를 眞氣의 反應뿐만 아니라 鍼下에 나타나는 熱感을 “陽氣隆至”, 涼感을 “陰氣隆至”라 하여 陽氣와 陰氣 또한 氣感反應의 範疇로 보았다^{6,16}. <靈樞·九鍼十二原論>에서는 “刺之要 氣至而有效”, “刺之而氣不至 無問其數 刺之而氣至 乃去之 勿復鍼”이라하여 得氣 즉 經氣가 이르는 것을 效果를 얻는 必要 前提라고 認識하였다⁶.

鍼感은 刺鍼후 患者와 施術者가 함께 느끼는 經氣의 反應으로 得氣라고 하고 鍼響은 刺鍼으로 얻

어진 鍼感이 一定한 部位를 향하여 傳導되거나 擴散되는 것을 行氣라고 한다⁴. 行氣시키는 手法을 일컬어 引起法⁷, 通氣法⁴, 導氣法⁴, 氣至病所法¹⁴, 運氣法^{4,14}이라고 한다.

歷代 醫家들은 鍼灸術에 있어 主治에 따른 正確한 穴位選擇과 經氣를 이끌어내는 得氣 즉 鍼感이 있어야 效果가 있다고 하였으며, 經氣가 一定한 部位로 傳導되는 鍼響에 대해 매우 重要하게 생각하여 여러 가지 方面으로 敘述하였다. 이에 著者는 黃帝內經을 包含한 各家의 醫書에 수록된 鍼感과 鍼響에 관한 內容을 整理하고 이에 대해서 研究한 바를 報告하고자 한다.

II. 본론

1. 文獻의 種類와 研究方法

國內外에 紹介된 鍼灸學關聯書籍을 選擇하여 研究資料로 삼았다.

1) 參考文獻

- (1) 陸壽康外 2人: 鍼刺手法一百二十種
- (2)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教室編著: 鍼灸學(上)
- (3)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教室編著: 鍼灸學(下)
- (4) 本間祥白: 難經之研究
- (5) 楊維傑: 鍼灸經緯
- (6) 王雪苔: 中醫鍼灸大全 上編·鍼灸學基礎
- (7) 郭霽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 (8) 王琦外 4人: 黃帝內經素問今釋
- (9) 程寶書: 鍼灸大辭典
- (10) 楊繼洲: 鍼灸大成校釋
- (11) 焦國瑞: 鍼灸臨床經驗輯要

2) 研究方法

(1) 鍼感(得氣) 및 鍼響(行氣)과 關聯된 內容을 다른 醫書들을 收集하고 內容을 調査·整理하였다.

(2) 拔萃한 內容중 有關한 內容을 묶어 小題目으로 나누어 羅列하고 研究·整理하였다.

2. 文獻의 內容

1) 得氣의 定義

得氣는 鍼下에서 經絡의 氣가 얻어지는 感應을 말한다¹⁷⁾. <素問·離合眞邪論篇>¹⁶⁾에서 “吸則內鍼無令氣忤 定而久留 無令邪布 吸則轉鍼 得氣爲故”라고 처음 쓰여졌으며, 이는 일정한 穴位에 刺鍼한 狀態에서 일정한 手技를 가했을 때 鍼刺部位에서 나타나는 經氣의 感應이다. 同義語로는 “氣至”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鍼感”이라 하며⁴⁾, 이밖에 氣來⁹⁾·氣滿⁹⁾·氣下⁹⁾·鍼氣¹³⁾라고도 한다.

內經과 後世 文獻에서는 得氣를 眞氣·正氣의 反應뿐만 아니라 鍼下에 나타나는 熱感을 “陽氣隆至”, 涼感을 “陰氣隆至”라 하여 陽氣와 陰氣 또한 氣感反應의 範疇로 보았다^{6,16)}. 이에 대한 記錄으로 <素問·鍼解篇>¹⁶⁾에서는 “刺實須其虛者 留鍼陰氣隆至乃去鍼也, 刺虛須其實者 陽氣隆至 鍼下熱乃去鍼也”라고 하였다.

2) 得氣의 重要性

<靈樞·九鍼十二原論>¹⁵⁾에서는 “刺之要 氣至而有效”라 하였고 鍼灸大成의 <標幽賦>와 <金鍼賦>에서는 각각 “氣速至而效速 氣遲至而不治”, “氣速效速 氣遲效遲 死生貴賤 鍼下皆知.....候之不至 必死無疑”라 하였다⁶⁾. 이는 得氣가 疾病治療의 前提條件이며 氣感의 有無를 통해 人體 正氣의 盛衰를 推測할 수 있고 疾病의 豫後를 判斷하는데도 活用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⁶⁾.

3) 得氣의 表現

<靈樞·邪氣藏腑病形篇>¹⁵⁾에서는 “中氣穴則鍼游於巷”이라 하여 穴位에 正確히 刺鍼을 하면 經穴之 氣가 流行하여 患者는 酸·麻·重·脹 등의 鍼感을 느끼게 되고 醫師는 鍼이 빨려들어가는 듯한 手感을 느낄수 있다고 하였다¹⁴⁾. 醫家들이 臨床을 통해 알아낸 得氣感을 患者와 醫師 兩方面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患者의 鍼感

이는 刺鍼후 醫師의 暗示없이 患者가 느끼는 氣至感應으로 “神動”¹⁵⁾ 또는 “氣行”¹⁵⁾이라 한다. 鍼感으로는 대개 酸^{4,6,14)}·麻^{4,6,14)}·重^{4,6,14)}·脹^{4,6,14)}·熱^{4,6,14)}·涼^{4,6,14)}·沈⁴⁾·困^{4,14)}·觸電感^{4,6,14)}·蟲行^{4,6,14)}·跳躍^{4,6,14)}·傳導^{4,14)}·疼痛⁶⁾·痒⁶⁾·吹風⁸⁾·氣流¹⁴⁾ 등의 感覺이 나타난다. 이러한 感覺은 單獨으로 또는 複合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⁴⁾.

(2) 醫師의 鍼感

예로부터 醫師가 判斷하는 得氣感은 매우 重要시 되어 왔다. 歷代醫書에 收錄되어 있는 內容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靈樞 邪氣藏府病形篇>¹⁵⁾ “中氣穴則鍼游於巷”

<鍼灸大成>⁶⁾ “輕浮·滑虛·慢遲 入鍼後值此三者乃眞氣之未到 沈重·澁滯·緊實 入鍼後值此三者是正氣之已來”

<鍼灸大成·標幽賦>⁸⁾ “氣之至也 如魚吞鉤餌之沈浮 氣未至也 如閑處幽堂之深邃”

<鍼灸大成>⁶⁾ “若氣不朝 其鍼爲輕滑 不知疼痛 如插豆腐....如神氣卽至 針自緊澁”

<醫學入門>⁶⁾ “如鍼下沈重脹滿者 爲氣已至 若患者痛則爲實 覺酸則爲虛 如鍼下輕浮虛滑者 氣猶未至” 以上の 文獻에서 말한 眞氣의 已至와 未至를 表

표 1. 氣至와 氣未至時에 나타나는 醫師의 鍼感

氣 至	鍼下 沈重 澁滯 緊實 魚吞鉤餌之沈浮 脹滿
氣未至	輕浮 滑虛 慢遲 閑處幽堂之深邃

로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1).

4) 得氣感의 辨別

(1) 不良感應

氣至感應은 鍼刺로 얻어지는 治療에 適合한 刺戟으로 鍼刺副作用과의 鑑別이 必要하다¹³⁾. <靈樞·邪氣藏府病形篇>¹⁵⁾에서는 “刺之者 必中氣穴 無中肉節.....中肉節則皮膚痛”이라 하였는데 이는 穴位가 不正確하거나 手技法이 適當하지 못할 경우 氣至感應과는 區別되는 不쾌한 疼痛感이 發生함을 말한다¹³⁾.

(2) 正氣와 邪氣의 辨別

<靈樞·終始篇>¹⁵⁾에서는 “邪氣來也緊而疾 穀氣來也徐而和”라 하여 鍼感의 緊急과 和緩을 통해 正邪를 區分한다고 하였다.

(3) 虛와 實의 辨別

<醫學入門>⁶⁾에서는 “氣已至 若患者覺痛則爲實 覺酸則爲虛”라 하여 鍼感을 통해 虛實을 區別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대개 阿是穴 혹은 局部取穴을 통해 얻어진 局所鍼感을 말하는 것으로 臨床經驗이 많은 醫師 역시 이러한 認識을 하고 있다⁶⁾. 實證과 熱證의 경우에 脹·痛·觸電感·沈緊·澁滯·頂鍼의 鍼感이 나타나고 虛證과 寒證의 경우에 麻·酸·痒·鬆遲·吸鍼 등의 感覺이 나타난다고 하였다^{4,6)}.

以上을 綜合하여 볼 때 邪氣가 結聚되어 있을 때에도 鍼下의 沈·緊·澁 등의 感覺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正確한 得氣反應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患者의 自覺反應을 綜合하여 鑑別해야 한다¹⁴⁾.

5) 得氣에 影響을 주는 要因

(1) 內部的인 要因

鍼感은 鍼刺의 刺戟이 人體에 作用하여 나타나는

自覺反應으로 人體의 生理 病理的 反應으로 나타나는 것이다⁸⁾. 그러므로 人體內部的 機能狀態와 反應能力이 患者가 鍼刺感覺을 느끼는 內部的 根據가 된다⁸⁾. 具體的으로는 患者의 年齡, 體質, 神經의 敏感性, 病理狀態, 穴位가 所屬된 經絡, 局部的 解剖學的 特性과 反應能力 등이 이에 關聯된다. 또한 男女, 老少, 氣血의 多少, 體型의 다름에 따라서 鍼刺時에 得氣 感覺도 각각 달라진다¹⁷⁾.

<靈樞·行鍼篇>¹⁵⁾에서는 “百姓之血氣 各不同形”라 하여 여섯가지 體質에 따라 刺鍼시에 각기 다른 反應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重陽之人 其神易動 其氣易往也.....故神動而氣先行”이라 하여 神氣 즉 陽氣가 敏感한 사람은 得氣 역시 빠르고 陽氣가 적으면 得氣感 역시 程度에 따라 느리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2) 外部的인 要因

鍼感의 發生은 人體의 生理病理的 狀態와 反應能力 외에 刺鍼 自體의 性質과 強度 및 四時의 變化에 의해서도 決定된다^{8,17)}. 이는 鍼感이 機體가 刺戟을 받은 후에 發生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⁸⁾. 具體的으로는 刺鍼의 深淺, 刺鍼의 快慢, 捻鍼의 幅과 頻度, 指力의 強弱, 刺戟의 持續時間과 留鍼時間 등이 이에 關聯되며 四時陰陽에 의하여 달이 차고 기우는 影響과 經氣의 盛衰에 따라서 그 感應이 다르다^{8,17)}. 차고 따뜻한 氣候의 影響에 의하여 經脈의 內外와 浮沈에 의해서 感應이 달라지며 病證 表現이 다름에 따라서 鍼治療가 要求되는 經絡의 感應도 다르며 施術의 方法과 使用하는 修法에 따라서도 그 感應이 각각 달라진다¹⁷⁾. 이밖에 近來에 들어 널리 使用되고 있는 電鍼 혹은 藥鍼 穴位注射의 類型과 制劑 역시 鍼感의 強度와 直結된다⁸⁾.

6) 行氣의 定義

行氣는 刺鍼의 感應이 一定한 部位를 向하여 擴

散되고 傳導되는 현상이다¹³⁾. 일정한 穴位에 刺鍼한 狀態에서 일정한 手技를 가했을 때 鍼刺部位에서 나타나는 經氣의 感應이 得氣라면 이렇게 얻어진 鍼感이 일정한 部位를 향하여 擴散되고 傳導되는 現狀을 “行氣” 혹은 “鍼響”이라고 한다⁴⁾. 行氣시키는 手法은 引起法⁷⁾, 通氣法⁴⁾, 導氣法⁴⁾, 氣至病所法¹⁴⁾, 運氣法^{4,14)} 등이 있다.

7) 行氣의 重要性

<鍼灸大成·經絡迎隨設爲問答>⁸⁾에서는 “有病遠道者 必先使氣直到病所”라 하여⁶⁾ 遠隔取穴시 鍼感反應을 病所로 傳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臨床的으로 鍼刺感應이 病所에 까지 이르게 될 경우 治療效果 역시 顯著하고 痛症의 경우 즉시 痛症이 緩和되거나 消失된다⁴⁾.

8) 行氣感의 表現

行氣感 즉 鍼響은 대개 刺鍼後 手技를 통해 얻어진 鍼感이 일정한 方向으로 流注, 傳導, 擴散되는 特性이 있으며 經絡의 循行徑路를 따라 傳導되기도 한다¹⁴⁾.

9) 行氣感의 調節

刺鍼으로 얻어진 感覺은 手技法을 통하여 여러 方向으로 擴散시킬 수 있다. 예컨데 <鍼灸大成·金鍼賦>⁸⁾에서는 “按之在前 使氣在後 按之在後 使氣在前”이라 하여 鍼感을 위로 傳導시키고자 할 때에는 押手로 穴位의 아래를 壓迫한 후 手技를 加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手技法을 手指按壓法이라고 한다^{4,13)}. 이밖에도 鍼芒의 方向을 利用한 鍼芒迎隨法과 鍼響을 멀리하게 하기 위해 循行하는 經絡의 곳곳에 刺鍼하는 通經接氣法 그리고 呼吸을 통해서 鍼感을 上行 혹은 下行시키는 呼吸法 등이 있다⁴⁾.

10) 文獻에 記載되어 있는 鍼感과 鍼響

(1) 穴位에 따른 鍼感¹²⁾ (表 2)

(2) 人體 部位에 따른 鍼感^{12,14)} (表 3)

① 手指末端

十宣穴：局所的인 痛症이 있다.

② 手背

手三陽經：손등의 中渚와 合谷과 같은 穴들은 上下로 放散되고 小腸經의 腕骨과 後谿는 손바닥 쪽으로 퍼진다.

③ 手掌

手三陰經：손바닥에서는 局所的인 脹痛感이 있거나 經絡을 따라서 손가락으로 傳導된다.

④ 腕關節

手三陽經：局所的인 酸脹感과 손가락으로 傳導되기도 하며 小腸經의 養老의 경우 肘와 肩으로 傳導되기도 한다.

手三陰經：局所에 酸脹感이 있으면서 手指로 傳導된다.

⑤ 前腕

手三陽經：局所에 酸脹感이 있으면서 上으로 肘나 肩으로 가기도 하며 手로도 傳導된다.

手三陰經：孔最와 郄門은 아래로 向하고 列缺과 內關같은 것은 위로 放散된다.

⑥ 肘關節

手三陽經：局所에 酸脹感이 있으나 曲池의 경우는 刺鍼의 方向이나 角度, 補瀉에 따라서 上이나 下로 傳導되기도 한다.

手三陰經：局所에 酸脹感이 있거나 上下로 傳導된다.

肢에서의 鍼響은 大體的으로 局所的인 酸脹感과

上下로 麻電感이 나타나며, 曲池와 合谷은 刺鍼法에 따라서 鍼響이 다르게 나타난다.

⑦ 肩胛과 腋窩

手三陽經 : 局所적인 酸脹感이 있고 肩部로 擴散되거나 手指쪽으로 傳導된다.

手三陰經 : 局所에 酸脹感이 있으며 麻電感이 前臂로 擴散된다.

⑧ 頭部(督脈, 膀胱經, 膽經, 胃經의 一部)

督脈 : 局所에 脹感이 있거나 全身으로 퍼진다.

膀胱經 : 局所에 脹感이 있거나 頭頂部로 傳導된다.

胃經 : 痛脹感이 周圍로 擴散된다.

膽經 : 風池는 眼球, 全額, 側頭를 비롯해 頭項部까지 擴散된다.

⑨ 項

督脈 : 上下左右로 擴散된다.

⑩ 腰背部

督脈, 膀胱經 : 모두 背部에서는 下方이나 下外方으로 擴散되며 前胸部로 擴散되기도 하며 腰部에서는 下肢로 擴散된다.

⑪ 臀部

局所에 酸脹感이나 經脈을 따라서 下肢로 傳導가 되는데 長強은 肛門쪽으로 傳導된다.

⑫ 大腿部前後

局所에 酸脹感이 있으며 膝部로 傳導되며 血海의 경우는 骨盤部로 擴散되기도 한다.

側面의 경우에는 酸脹感이 下部 또는 大腿內側으로 放散된다.

⑬ 膝關節

局所에 酸脹感이 있다.

委陽 : 大腿上部로 傳導되고 委中은 足底로 傳導된다.

犢鼻 : 下部로 傳導된다.

⑭ 下腿

局所의 酸脹感이 있으면서 上下로 傳導된다.

胃經 : 足背로 傳導된다.

膽經 : 足底로 傳導된다.

膀胱經 : 承山の 경우는 膝窩로 傳導되고 飛揚은 下方으로 傳導된다.

⑮ 足踝關節

局所의 酸脹感이 있는 것이 共通이다.

胃經 : 足踝關節로 傳導된다.

膀胱經 : 崑崙은 小趾를 향해 傳導된다.

腎經 : 足底로 擴散된다.

⑯ 足背

局所의 酸脹感이 있다.

膽經 : 第4趾로 放散된다.

脾經 : 足底로 傳導된다.

⑰ 足趾端

局所에 痛感이 있다.

⑱ 足底

局所의 酸脹感이 있으며 足踝部로 傳導된다.

⑲ 顔面

三焦經 : 局所에 脹感이 있다.

胃經 : 局所에 脹感和 脣部와 顔面쪽으로 酸脹感이 있다.

任脈 : 局所에 酸脹感이 있다.

⑳ 頸

胃經：局所に脹痛感이 있으며 肩部로 傳導된다. 下腹部에서는 腹部에서의 傳導와 같으면서 生殖器
任脈：咽喉가 막힌듯한 느낌이 있으며 胸骨後面 쪽의 傳導도 있다.
을 따라서 胸部로 傳導되기도 한다.

大腸經：咽喉部가 緊張하여서 脹感이 發生한다.

㉓ 脇部

膽經：局所の 酸脹感이 있다.

㉔ 胸腹部

胃經：局所に 酸脹感이 있으며 下外方으로 傳導
된다.

脾經：局所に 酸脹感이 있다.

任脈：胸部에서는 局所の 酸脹感이 있으며 腹部
에서는 上下의 傳導와 外方으로의 傳導가 있으며

以上の 內容으로 미루어 볼 때 鍼響은 刺鍼으로
인한 鍼感이 經絡線을 타거나 局部에 擴散됨을 알
수 있다. 이는 鍼響이 刺鍼시 얻어지는 得氣와 同一
한 經氣임을 意味한다.

표 2. 穴位에 따른 鍼感

肺經	中府	天府	尺澤	孔最	列缺	太淵	魚際	少商				
酸	○		○	○	○	○	○					
麻	○	○	○									
重												
脹	○	○	○	○	○	○	○					
痛								○				
其他	○	○	電○	○	○							
大腸經	商陽	合谷	陽谿	手三里	曲池	肘髎	臂臑	肩髃	巨骨	扶突	禾髎	迎香
酸		○	○	○	○	○	○	○	○			
麻		○						○				
重												
脹		○	○	○	○	○	○	○	○	○	○	○
痛	○										○	○
其他					電			電		緊		流淚
胃經	承泣	四白	地倉	頰車	下關	頭維	人迎	梁門	天樞	水道	歸來	氣衝
酸	○	○	○	○	○				○	○	○	○
麻		○										
重								○				○
脹	○	○	○	○	○	○	○	○	○	○	○	○
痛			○			○	○					
其他	流淚	電		○	○	○		沈	○	○	○	○

胃經	脾關	伏兔	梁丘	犢鼻	足三里	上巨虛	豐隆	解谿	內庭			
酸	○	○	○	○	○	○	○	○	○			
麻			○		○	○						
重												
脹	○	○	○	○	○	○	○	○	○			
痛												
其他		○		熱○	○	電○	○	○				
脾經	隱白	太白	公孫	商丘	三陰交	地機	陰陵泉	血海	大橫			
酸			○	○	○	○	○	○	○			
麻					○							
重												
脹		○	○	○	○	○	○	○	○			
痛	○	○										
其他			○		○	○	○	○	○			
心經	極泉	少海	通里	神門	少府	少衝						
酸	○	○	○	○								
麻	○	○		○								
重												
脹	○	○	○	○	○							
痛					○	○						
其他	電	電		電○	○							
小腸經	少澤	後谿	腕骨	養老	肩貞	臑俞	天宗	曲垣	肩中俞	天容	聽宮	
酸		○	○	○	○	○	○	○	○	○	○	
麻				○	○							
重												
脹		○	○		○	○	○	○	○	○	○	
痛	○											
其他		○	○	○	電○	○	○		○	○	○	
膀胱經	睛明	攢竹	通天	天柱	大杼	風門	肺俞	厥陰俞	心俞	督俞	膈俞	肝俞
酸	○			○	○	○	○	○	○	○	○	
麻		○			○							○
重							○	○	○	○	○	
脹	○	○	○	○	○	○	○	○	○	○	○	○
痛		○										
其他	○	電○		○	○	○	沈○	沈○	沈○	沈○	沈○	○

膀胱經	膽俞	脾俞	胃俞	三焦俞	腎俞	氣海俞	大腸俞	關元俞	小腸俞	膀胱俞	白環俞	上膠
酸	○	○	○	○		○	○	○	○	○		○
麻					○	○	○				○	○
重	○	○	○	○								
脹	○	○	○	○	○	○	○	○	○	○	○	○
痛												
其他	沈○	沈○	沈○	沈○	○	電○	電○	○	○	○	○	○
膀胱經	次膠	中膠	下膠	承扶	殷門	委陽	委中	膏肓	志室	秩邊	承山	飛揚
酸	○	○	○	○		○	○	○	○	○	○	○
麻				○	○		○		○	○	○	○
重												
脹	○	○	○	○		○	○	○	○	○	○	○
痛												
其他	○	○	○	電○	電○	○	電○	○	○	電○	電○	○
膀胱經	崑崙	申脈	京骨	至陰								
酸	○	○	○									
麻												
重												
脹	○	○	○									
痛				○								
其他	○											
腎經	湧泉	然谷	太谿	照海	復溜	築賓						
酸	○	○		○	○	○						
麻		○	○	○	○	○						
重												
脹	○	○	○		○							
痛	○											
其他	○	○	電○		○	○						
心包經	曲澤	郄門	間使	內關	大陵	勞宮	中衝					
酸	○		○		○							
麻	○	○	○	○	○	○						
重												
脹	○	○	○		○	○						
痛						○	○					
其他		○	○	電○	○	○						

三焦經	關衝	中渚	陽池	外關	支溝	三陽絡	四瀆	天井	肩髃	天廡	翳風	耳門
酸		○	○	○	○	○		○	○	○	○	○
麻		○			○		○		○			
重												
脹		○	○	○	○	○	○	○	○	○	○	○
痛	○										○	
其他		電○		○	電○	○	○		電○		○	○
三焦經	絲竹空											
酸												
麻												
重												
脹	○											
痛												
其他												
膽經	瞳子髎	聽會	陽白	風池	肩井	五樞	居髎	環跳	風市	足陽關	陽陵泉	光明
酸		○		○	○	○	○	○	○	○		○
麻				○				○			○	
重												
脹	○	○	○	○	○	○	○	○	○	○	○	
痛												
其他	○			○	○		○	電○	○	○	○	○
膽經	懸鐘	丘墟	足臨泣									
酸	○	○	○									
麻	○											
重												
脹	○	○	○									
痛												
其他	○		○									
肝經	大敦	行間	太衝	中封	蠡溝	曲泉	章門	期門				
酸		○	○	○	○	○						
麻			○									
重												
脹		○	○	○	○	○	○					
痛	○	○						○				
其他		○	電○					○				

督脈	長強	腰俞	腰陽關	命門	至陽	靈臺	身柱	陶道	大椎	痙門	風府	百會
酸					○	○	○	○	○			
麻			○								○	○
重							○			○	○	○
脹	○	○	○	○	○	○	○	○	○		○	○
痛	○											○
其他	○				○	○	沈○	熱,冷○	熱,冷○	沈,	沈,電	壓迫感○
督脈	上星	神庭	素膠	水溝								
酸			○	○								
麻												
重												
脹		○	○	○								
痛	○			○								
其他	壓	沈	○									
任脈	曲骨	中極	關元	石門	氣海	陰交	下脘	中脘	上脘	巨關	臍中	璇璣
酸	○	○										○
麻			○			○		○	○	○		
重							○					
脹	○	○	○	○		○	○	○	○	○	○	○
痛					○							
其他	○		○	○	壓迫○	○	沈○	緊滿熱○	○			
任脈	天突	廉泉	承漿									
酸	○	○	○									
麻												
重	○											
脹	○	○	○									
痛			○									
其他	沈○	壓迫										

표 3. 人體 部位에 따른 鍼感

手指足趾末端部	痛
四肢肌肉豐富處	酸·麻·脹·困·觸電·跳躍·上下傳導·放散(대체로 深部에서 느껴진다)
頭面部·腹部	沈壓
腰背部	酸脹

III. 고찰

〈靈樞·海論〉¹⁵⁾에서는 經脈을 일컬어 “夫十二經脈者 內屬於臟腑 外絡於肢節”이라 했으며 同時에 氣血循環의 通路라고 하였다. 人體는 이러한 經絡을 통해서 全身에 氣血을 골고루 濡養받아 正常的인 生理活動을 維持할 수 있다¹²⁾.

〈素問·繆刺論〉¹⁶⁾에서는 “邪之客於形也 必先舍於皮毛 留而不去 入舍於孫絡 留而不去 入舍於絡脈 留而不去 入舍於經脈 內連五臟 散於腸胃 陰陽俱感 五臟乃傷 此邪之從皮毛入 極於五臟之次也”라 하여 邪氣가 經絡을 통해 體表로부터 體內로 進入한다고 說明하였고¹²⁾, 〈難經一難〉²⁾에서는 “十二經脈皆有動脈 獨取寸口 以決五臟六腑死生吉凶.....寸口者 肺之大會 手太陰之脈動也”라 하여 十二經의 病을 手太陰肺經의 寸口動脈으로부터 診斷한다고 하였다¹²⁾. 또한 〈靈樞·九鍼十二原論〉¹⁵⁾에서는 “五臟有疾也 應出於十二原 十二原各有所出 明知其原 觀其應 而知五臟之害矣”라 하여 經絡이 人體의 各部에 分布되어 있으므로 疾病이 內臟에서 發生하더라도 그 經脈에 屬하는 部位에 各種의 症狀 및 徵候가 나타남을 說明하였다¹²⁾.

鍼灸治療는 人體에 있어서 運輸, 反應, 傳導의 3大作用을 하는 經絡의 屬性을 利用하여 氣血을 調節하고 疾病을 治療하는 方法이다¹³⁾.

鍼感은 刺鍼후 患者와 施術者가 함께 느끼는 經氣의 反應이고 鍼響은 刺鍼으로 얻어진 感覺이 일정한 方向으로 傳導되는 것이다. 歷代 醫家들은 主治에 따른 正確한 穴位選擇을 중요시 여겼으나, 刺鍼을 正確히 하였더라도 經氣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效果가 적다고 하였다. 〈靈樞·九鍼十二原論〉¹⁵⁾에서 말한 “刺之要 氣至而有效”라는 文句로 보아 經絡을 통해 病을 治療함에 있어서 得氣의 有無는 治療의 關鍵이

된다고 思料된다. 아울러 刺鍼을 통해 經氣를 얻어내는 法 즉 得氣는 疾病治療 뿐만 아니라 正氣의 盛衰를 判斷하는데도 活用하였다. 이는 經脈內를 循環하는 經氣 즉 眞氣가 刺鍼을 통해 激發되어 施鍼者의 손과 患者의 感覺을 통해 느껴지는 것이라고 思料된다.

刺鍼을 통해 患者가 느끼는 自覺反應은 患者의 身體的인 狀態를 反映하는 것이다. 年齡, 體質, 病理狀態, 敏感性 등은 모두 得氣의 遲速과 密接한 聯關이 있는 것이므로 患者의 體力이 弱하여 鍼感을 잘 못 느낄 경우에는 留鍼法과 같은 緩慢하게 經氣를 끌어내는 方法을 使用하는 것이 適合하다고 思料된다. 體力이 虛弱한 者에게 強力한 手技를 使用하는 것은 올바른 得氣를 일으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患者의 苦痛을 加重시키는 結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刺鍼을 통해 醫師와 患者 兩方面에서 느껴지는 鍼感에 대해 歷代의 醫家들은 각기 다르게 論術하고 있다. 患者가 느끼는 鍼感의 경우 酸·麻·重·脹·熱·涼 등 몇가지에서는 一致된 見解를 보였으나, 醫書에 따라 약간의 差異가 있었다. 醫師 鍼感의 경우에는 施術後 鍼身이 목격해지거나 빨려들어가는 듯한 느낌 등 手感의 形容에 있어서 差異가 있었다. 이로 보아 醫者가 느끼는 鍼感은 患者가 느끼는 鍼感보다 客觀的인 樣相을 보이며 患者의 鍼感은 자신이 느끼는 主管的인 感覺表現으로 여러 가지 感覺이 있을 수 있다고 思料된다. 단지 重要的 것은 神經刺戟이나 血管破裂로 인한 患者의 不快感과 彎鍼 또는 滯鍼으로 인한 鍼의 澁滯感을 得氣感으로 錯覺해서는 안된다. 不良感覺을 預防하기 위해선 正確한 經絡의 流注와 人體 解剖學의 知識 그리고 刺鍼法, 手技法 등을 熟知해야만 한다.

〈鍼灸大成·經絡迎隨設爲問答〉⁴⁾에서는 “有病遠道者 必先使氣直到病所”라 하여 穴位에 刺鍼하여 얻어진 鍼感을 經絡의 循行線을 통해 病所에까지 到達하게 하는 鍼響傳導는 疾病治療의 效果가 顯著하다

고 하였다. “以痛爲輸” 원칙에 입각한 局所取穴과는 달리 주로 肘膝以下の 五俞穴을 이용해서 患處와 멀리 떨어진 俞穴을 選擇하여 鍼感을 患處까지 傳導시켜 病을 治療하는 것을 遠隔取穴이라고 한다⁵⁾. 遠隔取穴은 經絡 循行徑路를 통해 經氣를 傳導하여 疾病을 治療하는 것으로 局所取穴보다는 한단계 더 發展한 鍼灸療法이라고 思料된다. 鍼響傳導가 人體의 上下左右를 交通하는 經絡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을 때 이러한 遠隔取穴法은 十四經脈의 循行線 뿐만 아니라 十二經脈을 緊密하게 連結시키는 經別 그리고 奇經八脈과 十二正經이 交會하는 八脈交會穴 등을 利用해도 좋은 治療效果를 얻을 수 있다고 思料된다.

鍼響은 患者만이 느끼는 感覺의 傳導이다. 鍼響의 感覺은 刺鍼에 의한 得氣感과 一致함을 보였다. 이는 得氣와 行氣가 鍼刺治療에 있어서 하나의 連續된 過程에 屬함을 意味한다고 思料된다.

人體 各 部位別로 나타나는 特定的인 鍼感의 경우는 肌肉이 豊富한 곳에서 鍼感이 多樣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表3參照). 四肢末端 같이 肌肉은 적고 末梢神經이 密集해 있는 곳은 鍼感이 痛症을 爲主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末梢神經 刺戟으로 인해 誘發되는 極甚한 痛症은 昏睡, 氣絶 등 意識不明인 狀態일 때 意識을 恢復시키는데 使用할 수 있다고 思料된다. 腰背部의 경우에 解剖學的으로 脊髓 神經이 分布하고 있으므로 神經路를 따른 酸脹感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頭面部의 경우 皮下 淺部에 血管과 神經, 筋肉이 分布하고 皮膚와 뼈가 서로 가까운 距離에 있으며 腹部의 경우 腹腔臟器를 갖고 있어 鍼感이 비교적 깊고 壓迫感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解剖學的으로 特徵的인 肌肉, 血管, 神經, 臟器 分布를 갖고 있는 部位의 경우 上述한 鍼感을 得氣感의 標準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思料된다.

위에서 말한 各 部位別로 나타나는 鍼感으로 보았

을 때 鍼感이 神經系와 聯關이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하지만 鍼刺의 刺戟은 전적으로 神經傳導路나 血管의 分布路線과 一致하지 않는다. 歷代 鍼灸學 書籍에서는 人體의 有機的 連結이 經絡의 連繫에 依存한다고 하였다. 經絡을 理解하고 人體를 파악함에 있어서 西醫學의 神經系나 血管系와는 다른 獨特한 解析으로서 하나의 독자적인 體系로 區別하여 認識해야만 한다¹²⁾. 得氣에 대한 實驗研究에서 肌肉에 刺鍼을 하여 나타난 酸脹感은 刺戟에 의한 筋肉의 疲勞라고 主張하기도 하였으나³⁾, 現代에도 經絡敏感人이라는 특수 能力者가 있어 十二經絡의 原穴을 刺戟했을 때 나타나는 鍼響이 古典에 나타난 十二經絡의 流注와 同一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鍼感과 鍼響을 研究하는데 重要的 端緒를 提供해 주고 있다¹¹⁾. 各 穴位에 따른 鍼感과 鍼響을 調査한 結果 鍼響이 經絡線을 따라 傳導되거나 局所에서 擴散되었으며 體幹의 경우 때때로 體腔內로 鍼感이 傳導되는 傾向을 보였다.

韓醫學에서는 文獻的으로 鍼感과 神經의 聯關性에 대해서는 言及한 바는 없으나 鍼感이 하나의 感覺이라고 할때 神經傳導路를 타고 大腦로 傳達되는 것은 當然한 것이다. 단지 鍼刺 部位 혹은 手技에 따른 神經感覺의 差異가 있는 것은 局部의 解剖學的인 肌肉 分布와 手技刺戟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思料된다.

以上の 內容을 살펴본 結果 手技에 따른 鍼感의 變化는 鍼에 의한 皮下組織의 興奮蓄積으로 인해 感覺의 變化가 發生하는 것으로 鍼具의 操作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느낌으로 思料된다. 특히 得氣와 行氣感은 神經感覺와 聯關이 있으며 刺鍼部의 解剖學的 特徵과 手技法에 의해 다양한 感覺이 나타날 수 있다고 思料된다.

現在까지 鍼感과 鍼響이 特徵的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特殊한 穴位에 대한 研究는 있으나 각각의 經穴 相互간의 規則이나 聯關性에 대해서 보다 많은

研究가 必要할 것으로 思料된다.

向後 鍼感和 鍼響에 관한 지속적인 文獻研究와 實驗 및 臨床研究가 必要할 것으로 思料된다.

IV. 결론

鍼感和 鍼響에 대해서 歷代 醫書와 鍼灸學 書籍들을 整理 考察해 본 結果 아래와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鍼感은 得氣로서 최대한의 治療效果를 얻기 위한 必要前提이며 鍼刺에 의한 經氣의 激發이다.
2. 鍼響이란 行氣로서 經氣가 一定한 部位로 傳導되는 것으로 遠隔治療를 위한 必要前提가 된다.
3. 患者의 鍼感은 患者의 主觀의인 表現으로 酸·麻·重·脹·熱·涼·沈·困·觸電感·蟲行·跳躍·傳導·疼痛·痒·吹風·氣流 등의 感覺이 나타난다.
4. 患者의 鍼感은 單獨 혹은 複合的으로 나타날 수 있다.
5. 醫師의 鍼感은 患者의 鍼感에 비하여 客觀의인 表現으로 施術者의 手感를 통해 느껴지는 鍼身과 經氣의 反應이다.
6. 醫師는 施術 過誤로 인한 不良感覺과 올바른 鍼感을 區別해야 한다.
7. 鍼感和 鍼響은 하나의 連續된 過程이며 局所治療 혹은 遠隔治療에 따라서 選擇活用해야한다.
8. 鍼感和 鍼響의 感覺은 神經分布와 聯關이 있으며 刺鍼部의 解剖學的 特徵과 手技法에 의해 多様な 感覺이 나타날 수 있다.

以上과 같은 研究 結果로 보아 鍼感和 鍼響에 대한 持續的인 研究가 必要하며 臨床에서 患者와 醫師의 氣感을 正確하게 追跡하여 客觀的으로 考察해 볼 필요가 있다고 思料된다.

V. 참고문헌

1. 박희준. 氣란 무엇인가. 서울:정신세계사. 1989:119.
2. 本間祥白.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1981:1.
3. 朴英培 外2人. 得氣狀態에 筋電圖의 電力 스펙트럼 觀察. 大韓鍼灸學會誌. 1988;5(1):47.
4. 王雪苔. 中醫鍼灸大全 上編·鍼灸學基礎. 中國河南: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8:514,516,518.
5. 王雪苔. 中醫鍼灸大全 下編·鍼灸學臨床. 中國河南: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8:19.
6. 楊維傑. 鍼灸經緯. 臺灣 台北:志遠書局. 1994:61,80-81,83.
7. 程寶書. 鍼灸大辭典. 중국 하북:북경과학기술출판사. 1987:44,306.
8. 楊繼洲. 鍼灸大成校釋. 臺灣 台北:啓業書局. 1987:179,222,224,518.
9. 焦國瑞. 鍼灸臨床經驗輯要. 북경:인민위생출판사. 1981:15-16.
10. 楊甲三. 鍼灸腧穴學.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45-46.
11. 林鍾國. 鍼灸治療學. 서울:集文堂. 1986:226.
12.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教室編著. 鍼灸學(上). 서울:集文堂. 1994:45, 53-54.
13.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教室編著. 鍼灸學(下). 서울:集文堂. 1994:1077, 1079, 1095.
14. 陸壽康 外2人. 鍼刺手法一百二十種. 臺灣 台北市: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34-36.
15. 郭霽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서울:一中社. 1992:7,11,53,95,268,442.
16. 王琦 外4人. 黃帝內經素問今釋. 中國 貴州:貴州人民出版社. 1981:141,282.
17. 나창수. 經絡·輸穴學 理論. 서울:정문각. 1999:141-142.